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분쟁 우려 지속

당분간 종목별 실적 장세

대북관련주·제약바이오 저점매수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6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부과 시점을 오는 23일로 확정하고 중국도 관세부과조치로 맞 대응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지난주 관심이슈로 언급했던 중국외환보유고가 예상과 달리 15억 위안 증가했고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6일 외환선 물 거래에 20% 준비금을 재차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면서 위안화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국내증시는 여전히 중국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관련주 및 제약바이오주의 순환매를 보였다.

삼성그룹은 지난 8일 미래성장기반 구축, 혁신역량공유, 상생협력에 의해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총 180조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스타트업 지원, 산학협력, 상생과 공유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투자발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반등세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듯 했지만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크게 우려된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과거 10년중 최고수준의 반도체 재고와 내년부터 중국기업의 시장진입으로 경쟁과열을 예상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3%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만 9.84% 하락해 7만5100원으로 마감했는데 반도체경기 민감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은 10일에만 삼성전자 500만주, SK하이닉스 200만주 이상 순매도하며 주가하락을 부추겼다. 모건스탠리 주장에 대해 대부분 국내증권사는 업황 고점 우려는 반도체산업이 개인소비중심에서 기업용시장(데이터센터 등)으로 이전되고 있고 중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아직은 국내기업이 크게 우월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가 조정 시 저점매수를 권유했다.

반도체시장에 대한 외국계증권사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호전으로 100%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기대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스권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영향력은 점차 제한되고 있어 추가적인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증시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은 예상실적을 충족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시기와 유사하게 3분기 예상실적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지수 상단도 제한되고 있다.

지수변동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북관련주·제약바이오·IT장비업종 등에 대해 추격매수보다는 저점 분할매수 후 반등시점을 찾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오를때 '급등' 내릴때 '짚킴'...축산물값 절반 유통비용

유통비 비중 갈수록 커져 생산자·소비자 모두 불만

1분기 소·돼지·닭·계란 48.6%...전년 동기보다 4.7% 포인트 높아

축산물에 대한 유통비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50% 상당이 '유통비용'이라는 점에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 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가 2분기 연속으로 소비자 가격의 48%를 돌파할 정도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소·돼지·닭·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률이 소비자 가격에서 농가가 가져가는 수취가

격을 제외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축산물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4분기 48.1%를 기록한 뒤 2분기 연속으로 48%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내내 43%대를 유지하던 것에서 무려 5% 포인트 정도가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축산물 유통비용률을 살펴봐도 지난 ▲2014년 44.7% ▲2015년 45.4% ▲2016년 46.5% ▲2017년 45.8% 등으로 44~46% 선을 유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2013년 유통비용 급증에 따라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시행됐을 당시 수준(49.8%)에 육박할 수 있다.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쇠고기가 49.5%로 2.4% 포인트가 올랐으며, 돼지고기는 45.6%로 5.6%포인트가 상승, 계란은 52.8%로 무려 20.5%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고기 55.9%를 기록하며 0.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지난해부터 돼지고기와 계란 등 가격이 급락하면서 유통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가 떨어지면서 생산자인 축산 농가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적어지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축산업계가 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실제, 생산자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은 더 많이 올랐고, 생산자 가격이 내린 품목은 소비

자 가격 하락폭이 더 적었다.

1분기 쇠고기 생산자 가격은 전년보다 7.4% 올랐으나 소비자 가격은 12.3%로 더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와 계란의 생산자 가격은 각각 12%, 57% 내렸지만 소비자 가격은 각각 3%, 38.3% 내리는 데 그쳤다. 닭고기만 생산자 가격 하락폭(2.1%)보다 소비자 가격 하락폭(4%)이 더 컸다.

지역 축산농가 관계자는 "가격 등락과 달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유통업계라고 해도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가가 제값 받고 축산물을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전남 21개 시·군으로 공급할 양수기와 펌프를 차량에 옮기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최악 폭염으로부터 농작물 지켜라

농어촌공사, 나주호에 임시양수장 23개소 가동

전남농협, 21개 시군 양수기·펌프 등 240대 공급

폭염 속에 강수량까지 부족해 전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7%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대비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주호의 경우 평년 수준의 23.6%까지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수량은 793mm로, 평년대비 절반수준이어서 가뭄이나 용수확보가 어려운데다, 올해 강수량 역시 평년대비 86% 수준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도 나주호의 농업용수 확보와 절수를 위한 대책으로 하천수를 활용하거나 퇴수를 반복 이용해 저수지로 양수,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임시양수장 23개소를 가동하고 나섰다.

나주호 9054ha의 농경지 중 하류지역에 있는 양수장과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나주호에서 4696ha를 직접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말단부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탓에 1500ha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농경지에 직접 급수를 하고 있다.

하천수를 양수해 저수지에 양수저류하는 등 1일 50만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해 보충공급하고 있고, 저수량 절약을 위한 간이양수장 설치확대를 위해

용수원 개발·설치 등 30억원 투자를 계획 중이다. 농협도 폭염으로 인한 가뭄 등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10일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 21개 시·군에 양수기 90대와 펌프 150 등 2차 공급분 총 240대를 공급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 우려되면서 농협중앙회는 폭염피해 지원계획을 수립, 양수기와 펌프 등 급수장비를 전국에 3000대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박태선 본부장은 "연일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는 급년 여름은 농업인 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오늘 공급한 급수장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에 조속히 공급돼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여름방학 초·중·고 무료 문화체험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오는 30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문화체험행사는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사춘기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는 주 1회(매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며, 문화체험과 만들기 체험, 한농대 견학 등을 병행해 진행한다.

영화관람을 비롯해 한농대 도서관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문헌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에 함께 한 학부모를 위해 한농대 북카페도 운영한다. 들기 체험은 만들기 체험은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전화(063-238-9650-3)와 방문(한농대 도서관) 접수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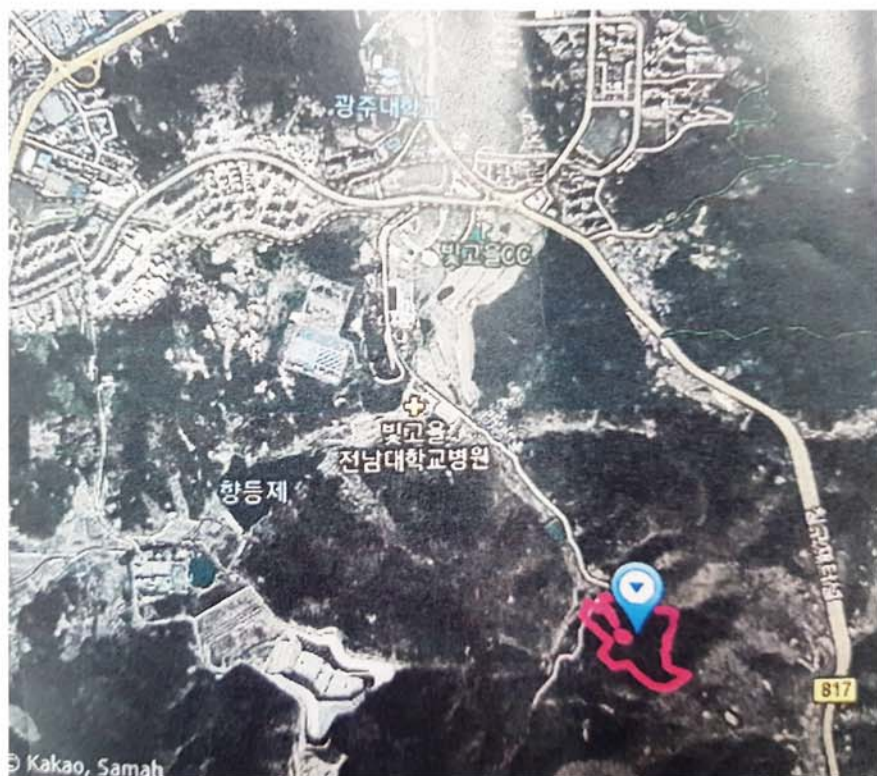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산지 인사·회계 관리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지조직 인사·회계 관리 실무향상(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인사, 회계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인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사·회계 기본원리부터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진 과정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산지조직 및 농업법인 인사·회계 담당자와 및 관리자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자부담은 1만 6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